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0.07 [25~27]

이때 학공이 모친 슬하를 떠난 지 이미 십여 년이라. 노비 전담 문서를 매양 의복 속에 넣어 남이 몰라보게 하였더니, 그 문서를 신부가 알까 염려하여 그윽한 곳에 감추고 종종 가 보더니, 동지가 마침 그것을 보고 왈,

“기다 무엇을 두고 저리 자주 보시고.”

하고 즉시 가 보니 전대에 두루마리 문치가 있거늘, 가지고 저의 방에 들어가 떼어 보니 하였으되, '강주 홍천부 북면에 사는 김 낭청의 아들 학공'이라 하였거늘, 동지가 대경하여 이르되,

“전일에 들으니 김 낭청 님 종들이 낭청이 죽은 후 집의 가장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 여러 놈들이 그 집을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 사는지라, 주야로 들으니 그놈들이 말하기를 그 아들 학공을 잡아 죽여 후환을 없이 하자 하는 말을 들었더니 이리 될 줄 어찌 알았으리오.”

하고 살펴보니 또 한 봉이 있거늘 자세히 보니 하나는 노비 전담 문서라. 동지가 대경하여 별선을 불러 왈,

“너희 들을 보지 못하면 눈에 암암하여지더니,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하며 전후곡절을 말하니, 별선이 대경하고 낙루하며 왈,

“이 말이 만일 누설되면 낭군은 목숨을 잃을지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부친은 이 말을 경솔히 누설치 마옵소서.”

하더라.

이때 학공의 나이는 십팔 세요, 별선의 나이는 십육 세라. 부부가 흥락하여 주야로 즐겨하더니, 일일은 별선이 낭군께 문 왈,

“낭군은 본디 어디 살아 계시며 부형은 뉘라 하시나이까.”

학공이 대 왈,

“조실부모한 고로 알지 못하노라.”

하니, 별선이 또 문 왈,

“낭군이 흥천 북면촌에 사시던 김 낭청의 자제가 아니나이까.”

학공이 변색 대 왈,

“이 말이 어인 말인고.” / 하니 별선이 대 왈,

“첩에게 감추지 마옵소서.” / 하고 저의 부친이 하시던 말씀을 자세히 말할 즈음에, 그 모 홍 씨가 딸의 방으로 놀러오다가 창 밖에서 들으니 여차여차하거늘, 이 말을 듣고 놀라 천방지방 달려와 호흡을 통치 못하다가 동지에게 왈,

“여아의 방에 갔다가 들으니 저의 내외 하는 말이 사위가 흥천부 북면에서 살던 김 낭청의 아들이라 하니 매우 수상하더이다.”

동지가 크게 꾸짖어 왈,

“어디서 부당한 말을 듣고 옮기는다.”

하고 별선을 불러 왈,

“너의 모친이 마침 네 방에 갔다가 너희들이 여차여차하는 말을 듣고 와서 나에게 이르니 어찌된 말이나.”

별선이 듣고 망극하여 왈,

“지희의 목숨은 부모님께 달렸사오니 불초한 자식을 보아 각별 조심하여 주옵소서.”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또 들어와 엎드리며 왈,

“복망 빙부께옵서는 널리 생각하사 이 말을 누설치 마옵소서. 만일 이 말이 누설되오면 불쌍한 인생이 살기 어렵사오니 깊이 통촉하옵소서.”

하니, 동지가 학공의 손을 잡고 왈,

“장부가 아니로다. 어찌 대장부가 이만한 일을 두려워하리오. 내 어찌 이 말을 누설하리오. 조금도 염려치 말라.”

하니, 학공이 수심을 덜고 방으로 돌아오니라.

수삼 삭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더니, 하루는 홍 씨가 술을 대취하게 먹고 저의 동류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차차 옮기어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아 촌중에 자자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죽일 묘책을 의논하니 학공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중략 부분 줄거리] 학공은 별선의 희생으로 계도섬을 탈출한 후 아버지의 죽마고우인 황 승상의 양자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자사가 되어 계도섬으로 돌아온다.

자사가 들어가며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산도 예 보던 산이요, 물도 예 보던 물이고, 수목도 예 보던 수목이라. 슬프다. 옛일을 생각하니 비회를 측량하지 못할라. 자사가 감책을 불러 자사 왈, “내 이 섬을 구경코자 와 보니, 섬은 절승지요, 또한 폐치 못할 섬이로다. 그러하나 인총(人叢)이 적으니, 온갖 구실과 전세를 탐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장계했으니 그러들 알라.”

하니, 그곳 백성들이 분부를 듣고 여쭙되,

“태산 같은 덕택으로 안접(安接)하게 해 주옵소서.”

하더라. 자사 왈,

“너희들은 하나도 떠나지 말고 안접하라.”

하고, 물가에 나와 배를 타고 떠나니 그놈들이 손 모아 축수 하더라. 자사가 '원수를 갚을 비계를 얻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 하리오'하고, 육지에 다다르니, 각 읍 군마와 대신이 다 등대했더라. 자사가 기뻐 즉시 이 뜻으로 천자께 아뢰고, 황 승상과 임 감사에게 서간을 보내고, 도로 회정하여 섬으로 들어가더라.

이때 그놈들이 자사의 말씀을 곧이듣고 양양자득(揚揚自得)하여 지내더니, 자사 다시 들어오신다 하거늘 더욱 기뻐하여 강두에 나와 맞으며 좋아하더라.

자사가 들어갈 제 군졸더러 분부하여 왈,

“내가 이 섬을 포상하고자 하여 뜻을 나라에 아뢰었더니, 교지에 '다시 들어가 백성을 안무하라' 하시기로 내 다시 왔다. 별로 분부할 말이 있으니, 너희는 가동주졸(街童走卒)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대령하여 영을 들으라.”

이놈들이 모두 기뻐하여 남녀노소 가동주졸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였는지라. 자사 장대에 높이 올라 방포 일성에 백기를 휘 두르니, 억만 군병이 일시에 응답하고 둘러싸는지라. 기치창검은 일월을 희롱하고, 고각함성은 천지에 진동하더라.

자사가 그제야 완완히 나서며 모인 중에 분부하여 왈,

“타동 백성이 이 중에 있거든 좌편으로 앉으라.”

하고, 또 별선의 아비 내외도 좌편으로 가라 영을 내리시고, 그 남은 수를 살펴보니 부지기수라. 자사가 호통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나는 강주 흥천부 북면에서 살던 김 낭청의 아들 학공이다. 너희는 무슨 원수로 나의 부모 동생을 다 죽이고자 하고, 나도 마저 죽이려 했느냐? 애매한 별선이란 죽인 것을 아느냐? 내 이제 부모 동생과 별선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들어왔으니, 너희는 내 손에 죽어 보라.”

그놈들이 이 말을 들으며 대경실색하여 아니 떠는 놈이 없더라. 함정에 든 범이요 그물에 든 고기라 어찌 도망기를 바라리오. 속절없이 학공의 손에 일조에 함몰하나니라.

- 작자 미상, 「김학공전」 -

\* 안접 :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살.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지는 학공이 지닌 두루마리 문치를 통해 김 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 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② 학공이 김 낭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별선은 동지를 통해, 흥 씨는 학공 내외가 하는 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
- ③ 학공은 자신이 계도섬에 온 목적을 감추기 위해, 감색에게 계도섬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했다.
- ④ 계도섬 사람들은 자사가 학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학공이 육지로 배를 타고 떠날 때 축수했다.
- ⑤ 학공은 계도섬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에 무고한 백성은 좌편에 앉게 해 그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B]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걱정하고 있다.
- ② [A]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B]는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A]는 자책하는 독백을 통해, [B]는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B]는 상대를 질책하기 위해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을 암시하고 있고, [B]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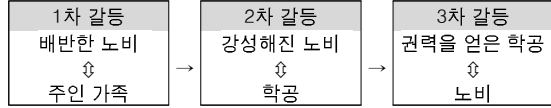
이 작품은 반란을 일으킨 노비와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룬 소설로, 조선 후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신분제가 동요되고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노비와 주인의 갈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                               |   |                             |   |                               |
|-------------------------------|---|-----------------------------|---|-------------------------------|
| 1차 갈등<br>배반한 노비<br>⇕<br>주인 가족 | → | 2차 갈등<br>강성해진 노비<br>⇕<br>학공 | → | 3차 갈등<br>권력을 얻은 학공<br>⇕<br>노비 |
|-------------------------------|---|-----------------------------|---|-------------------------------|

- ① '김 낭청 댁 종들이' 주인댁 가장이 없는 상황을 기회로 학공을 죽이려 하고 재산을 탈취한 것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김 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죽일 계획을 의논한 것은 학공의 존재가 자신들의 신분상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학공이 계도섬에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에서 봉건적 질서를 깨뜨리려는 학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계도섬을 탈출했던 학공이 자사가 되어 권력을 얻게 된 것은 '김 낭청 댁 종들과 학공 사이의 갈등 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군.
- ⑤ 계도섬에 돌아온 학공이 노비들을 '일조에 함몰'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복수이면서 동시에 신분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반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보 기>

이 작품은 반란을 일으킨 노비와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룬 소설로, 조선 후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신분제가 중요되고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노비와 주인의 갈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작품 속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작품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는 ‘노비와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1, 2, 3차 갈등 중 제시된 지문에서 어느 부분의 갈등이 등장하는지, 또는 갈등과 갈등 사이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는지에 유의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봉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양반층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을 유의해서 읽어 나간다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학공이 모친 슬하를 떠난 지 이미 십여 년이라. 노비 전답 문서를 매양 의복 속에 넣어 남이 몰라보게 하였더니, 그 문서를 신부가 알까 염려하여 그윽한 곳에 감추고 종종 가 보더니, 동지가 마침 그것을 보고 왈,

“거기다 무엇을 두고 저리 자주 보느뇨.”

하고 즉시 가 보니 전대에 두루마리 뭉치가 있거늘, 가지고 저의 방에 들어가 떼어 보니 하였으되, ‘강주 홍천부 북면에 사는 김 낭청의 아들 학공’이라 하였거늘, 동지가 대경하여 이르되,

“전일에 들으니 김 낭청 댁 종들이 낭청이 죽은 후 집의 가장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 여러 놈들이 그 집을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 사는지라, 주야로 들으니 그놈들이 말하기를 그 아들 학공을 잡아 죽여 후환을 없이 하자 하는 말을 들었더니 이리 될 줄 어찌 알았으리오.”

하고 살펴보니 또 한 봉이 있거늘 자세히 보니 하나는 노비 전답 문서라. 동지가 대경하여 별선을 불러 왈,

“너희 둘을 보지 못하면 눈에 암암하여지더니,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하며 전후국절을 말하니, 별선이 대경하고 낙루하며 왈, “이 말이 만일 누설되면 낭군은 목숨을 잃을지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부친은 이 말을 경솔히 누설치 마옵소서.” 하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학공이 노비 전답 문서를 펼쳐보는 모습을 의아하게 여긴 동지가 노비 전답 문서에 적힌 ‘김 낭청의 아들 학공’을 읽음으로써 학공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 동지가 ‘김 낭청 댁 종’들이 학공을 죽여 후환을 없애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학공과 노비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으며, 별선은 학공을 걱정하여 학공이 김 낭청의 아들임을 숨기고자 합니다. 글의 처음 부분이니만큼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학공은 <보기>에서 언급했던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이고, 별선은 학공을 낭군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학공의 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별선이 동지를 부친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동지는 학공의 장인이자 별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학공의 나이는 십팔 세요, 별선의 나이는 십육 세라. 부부가 흥락하여 주야로 즐거하더니, 일일은 별선이 낭군께 문 왈, “낭군은 본디 어디 살아 계시며 부형은 뉘라 하시나이까.”

학공이 대 왈,

“조실부모한 고로 알지 못하노라.”

하니, 별선이 또 문 왈,

“낭군이 홍천 북면촌에 사시던 김 낭청의 자제가 아니나이까.”

학공이 변색 대 왈,

“이 말이 어인 말인고.”/하니 별선이 대 왈,

“첩에게 감추지 마옵소서.”/하고 저의 부친이 하시던 말씀을 자세히 말할 즈음에, 그 모 흥 씨가 딸의 방으로 놀러오다가 창 밖에서 들으니 여차여차하거늘, 이 말을 듣고 놀라 천방지방 달려와 호흡을 통치 못하다가 동지에게 왈,

“여아의 방에 갔다가 들으니 저의 내외 하는 말이 사위가 홍천부 북면에서 살던 김 낭청의 아들이라 하니 매우 수상하더이다.”

동지가 크게 꾸짖어 왈,

“어디서 부당한 말을 듣고 옮기는다.”

하고 별선을 불러 왈,

“너의 모친이 마침 네 방에 갔다가 너희들이 여차여차하는 말을 듣고 와서 나에게 이르니 어찌된 말이나.”

별선이 듣고 망극하여 왈,

“저희의 목숨은 부모님께 달렸사오니 불초한 자식을 보아 각별 조심하여 주옵소서.”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또 들어와 엎드리며 왈,

“복망 빙부께옵서는 널리 생각하사 이 말을 누설치 마옵소서, 만일 이 말이 누설되오면 불쌍한 인생이 살기 어렵사오니 깊이 통촉하옵소서.”

하니, 동지가 학공의 손을 잡고 왈,

“장부가 아니로다. 어찌 대장부가 이만한 일을 두려워하리오. 내 어찌 이 말을 누설하리오. 조금도 염려치 말라.”

하니, 학공이 수심을 덜고 방으로 돌아오니라,

수삼 삭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더니, 하루는 흥 씨가 술을 대취하게 먹고 저의 동류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차차 옮기어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아 혼중에 자자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죽일 묘책을 의논하니 학공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학공과 별선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별선이 학공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밝히는 와중, 별선의 어머니인 흥 씨가 우연히 이를 듣고 동지에게 가서 학공의 정체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공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던 동지는 흥 씨를 꾸짖으며 이를 넘기고, 학공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버린 흥 씨가 주변인에게 학공의 정체를 털어놓으며 학공의 정체가 노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서 언급했던 배반한 노비들이 학공을 죽이고자 계획하며 작품의 2차 갈등이 시작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학공은 별선의 희생으로 계도섬을 탈출한 후 아버지의 죽마고우인 황 승상의 양자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자사가 되어 계도섬으로 돌아온다.

자사가 들어가며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산도 예 보던 산이오, 물도 예 보던 물이고, 수목도 예 보던 수목이라. 슬프다. 옛일을 생각하니 비회를 측량하지 못할라. 자사가 감색을 불러 자사 왈, “내 이 섬을 구경코자 와 보니, 섬은 절승지요, 또한 폐치 못할 섬이로다. 그러나 인종(人叢)이 적으니, 온갖 구실과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장계했으니 그리들 알라.”

하니, 그곳 백성들이 분부를 듣고 여쭙되, “태산 같은 덕택으로 안접(安接)\*하게 해 주옵소서.” 하더라. 자사 왈,

“너희들은 하나도 떠나지 말고 안접하라.”

\*안접: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삶.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학공을 죽이고자 하던 노비들의 계획에서 별선의 희생을 통해 학공이 계도섬을 탈출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죽마고우인 황 승상의 양자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자사가 된 학공이 계도섬으로 돌아왔음을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학공은 어찌서인지 계도섬의 백성들에게 ‘구실과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했으며 ‘하나도 떠나지 말고 안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접’의 의미가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산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자신의 원수들이 살고 있음에도 ‘안접하라’고 말하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고, 물가에 나와 배를 타고 떠나니 그놈들이 손 모아 축수 하더라. 자사가 ‘원수를 갚을 비계를 얻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 하리오’하고, 육지에 다다르니, 각 읍 군마와 대선이 다 등대했더라. 자사가 기뻐 즉시 이 뜻으로 천자께 아뢰고, 황 승상과 임 감사에게 서간을 보내고, 도로 회정하여 섬으로 들어가더라.

이때 그놈들이 자사의 말씀을 곧이듣고 양양자득(揚揚自得) 하여 지내더니, 자사 다시 들어오신다 하거늘 더욱 기뻐하여 강두에 나와 맞으며 좋아하더라.

자사가 들어갈 제 군졸더러 분부하여 왈,

“내가 이 섬을 포상하고자 하여 뜻을 나라에 아뢰었더니, 교지에 ‘다시 들어가 백성을 안무하라’ 하시기로 내 다시 왔다. 별로 분부할 말이 있으니, 너희는 가동주졸(街童走卒)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대령하여 영을 들으라.”

이놈들이 모두 기뻐하여 남녀노소 가동주졸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였는지라. 자사 장대에 높이 올라 방포 일선에 백기를 휘두르니, 억만 군병이 일시에 응답하고 둘러싸는지라. 기치창검은 일월을 희롱하고, 고각함성은 천지에 진동하더라.

자사가 그제야 완전히 나서며 모인 중에 분부하여 왈,

“타동 백성이 이 중에 있거든 좌편으로 앉으라.”

하고, 또 별선의 아비 내외도 좌편으로 가라 영을 내리시고, 그 남은 수를 살펴보니 부지기수라. 자사가 호통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나는 강주 홍천부 북면에서 살던 김 낭청의 아들 학공이다. 너희는 무슨 원수로 나의 부모 동생을 다 죽이고자 하고, 나도 마저 죽이려 했느냐? 애매한 별선 이만 죽인 것을 아느냐? 내 이제 부모 동생과 별선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들어왔으니, 너희는 내 손에 죽어 보라.”

그놈들이 이 말을 들으며 대경실색하여 아니 떠는 놈이 없더라. 함정에 든 범이요 그물에 든 고기라 어찌 도망키를 바라리오. 속절없이 학공의 손에 일조에 함몰하나니라.

- 작자 미상, 「김학공전」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여기서 학공의 본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언급한 3차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공은 ‘원수를 갚을 비계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학공이 백성들에게 ‘안접’하라고 한 것은 그들을 안심하게 해 한번에 소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학공이 ‘섬을 포상’하고자 한다며 ‘가동주졸 할 것 없이 일제히 대령’하라고 이야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모든 사람들이 집결하자 다른 곳에서 온 백성들과 별선의 집안 사람들을 옆으로 물러나게 한 뒤, ‘호통’하며 원수들을 ‘일조에 함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보기>의 중요도가 높은 소설입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까지는 2차 갈등이, 이후에는 3차 갈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가며 읽었다면 내용 해석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동지는 학공이 지닌 두루마리 봉치를 통해 김 낭청 댁 중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 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동지는 학공이 지니고 다니던 '두루마리 봉치'에 '김 낭청의 아들 학공'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김 낭청 댁 중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 와 살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동지가 '전일에 들으니~'라며 이미 두루마리 봉치를 확인하기 전에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학공이 김 낭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별선은 동지를 통해, 홍 씨는 학공 내외가 하는 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

→ 별선은 학공이 김 낭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동지가 '별선을 불러'서 '전후곡절을 말하'여 알게 됩니다. 또한, 홍 씨는 '딸의 방으로 놀러오'다가 별선과 학공의 이야기를 '창 밖에서 듣'고 학공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③ 학공은 자신이 계도섬에 온 목적을 감추기 위해, 감색에게 계도섬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했다.

→ 학공은 '감색을 불러' '이 섬을 구경코자 와 보'았다며 '구실과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장계'했다고 말합니다. 구경을 위해 왔다는 학공의 말과는 달리, 학공이 계도섬에 온 목적은 섬의 백성들을 모두 모아 원수들을 한번에 제거하기 위해서임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④ 계도섬 사람들은 자사가 학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학공이 육지로 배를 타고 떠날 때 추수했다.

→ 계도섬의 사람들은 학공이 과거 계도섬을 탈출하기 전에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죽일 묘책을 의논'할 정도로 학공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학공이 자사로 돌아왔을 때 계도섬 사람들이 육지로 배를 타고 떠날 때 '손 모아 추수'하는 것으로 보아 자사가 학공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⑤ 학공은 계도섬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에 무고한 백성은 좌편에 앉게 해 그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 학공은 계도섬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에 '타동 백성'과 '별선의 아비 내외'를 좌편으로 가라고 영을 내립니다. 이후 '그 남은 수'를 살펴 '일조에 함몰'시키는 것으로 보아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 [A]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B]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걱정하고 있다.

→ [A]는 '전일에 들'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학공'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B]는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며 상대를 꾸짖고 있다는 점에서 틀린 선지입니다.

② [A]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B]는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 [A]는 자신이 '전일에 들'었던 일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으므로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겪었던 '마져 죽이려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③ [A]는 자책하는 독백을 통해, [B]는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 [A]는 과거에 들었던 말이 이렇게 자신과 연관된 일이 될 줄 몰랐던 동지의 탄식이, [B]는 타인을 꾸짖는 말을 통해 노비들의 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④ [A]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B]는 상대를 질책하기 위해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A]는 노비들이 '학공을 잡아 죽여 후환을 없'애고자 한다는 위기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어찌 알았으리오'와 같은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B]는 상대가 '나도 마져 죽이려 했'던 것을 질책하기 위해 '나를 모르느냐?', '나도 마져 죽이려 했더냐?' '별선 이만 죽인 것을 아느냐?'라며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⑤ [A]는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을 암시하고 있고, [B]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A]는 앞으로 학공에게 노비들이 '학공을 잡아 죽여 후환을 없'애고자 할'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맞으나, [B]의 경우 이미 고난을 극복하고 온 학공이 자신의 원수들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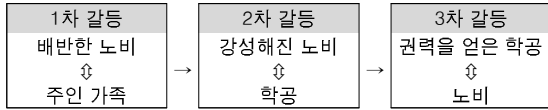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②

<보 기>

이 작품은 반란을 일으킨 노비와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룬 소설로, 조선 후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신분제가 동요되고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노비와 주인의 갈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① '김 낭청 댁 종들'이 주인댁 가장이 없는 상황을 기회로 학공을 죽이려 하고 재산을 탈취한 것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김 낭청 댁 종들'이 주인댁 가장의 부재를 기회로 학공을 죽이려 하고 재산을 탈취한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노비의 반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신분제가 절대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김 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죽일 계획을 의논한 것은 학공의 존재가 자신들의 신분상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김 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죽일 목표를 의논'한 것은 학공이 '노비 전답 문서'를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신분상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비 전답 문서'란 노비와 재산을 기록해 둔 문서임을 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학공이 계도섬에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에서 봉건적 질서를 깨뜨리려는 학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학공이 계도섬에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은 계도섬에 살고 있을 원수들이 섬에서 도망치지 않고 모여 있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봉건적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으며, 개인적인 복수와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양반층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④ 계도섬을 탈출했던 학공이 자사가 되어 권력을 얻게 된 것은 '김 낭청 댁 종들'과 학공 사이의 갈등 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군.

→ 계도섬을 탈출했던 학공이 자사가 되어 권력을 얻게 된 것은 3차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2차 갈등에서는 학공이 별선의 희생으로 계도섬을 탈출하는 것과 달리, 3차 갈등에서는 권력을 얻은 학공이 '김 낭청 댁 종들'을 '일조에 함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계도섬에 돌아온 학공이 노비들을 '일조에 함몰'한 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하면서 동시에 신분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반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계도섬에 돌아온 학공이 노비들을 '일조에 함몰'한 것은 '원수를 갚을 비계를 얻'은 학공의 개인적 복수이면서 그와 동시에 <보기>에서 언급했던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양반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려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신분 질서에 어긋나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